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9일 화요일 (음 4월 14일)

제18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대선을 하루 앞둔 8일 각 정당별 전북도당 선거운동원들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들의 선택! 오늘 5·9 촛불대선 각 정당 후보들, '진인사대천명'

도내 주요 정당들이 선거 하루 전이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제각기 판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발전이라는 명제에 앞장서며 촛불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대선을 하루 앞둔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겨울 촛불민심에서 국민의 분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고, 특히 국민들의 마음·민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임기가 어려운 지 보여줬다"며 "더이상 국민들의 불행이 지속되어선 안되고 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못다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전북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나,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민

민주당 "문재인과 새 시대 열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선택해달라"
국민의당 "안철수 찍으면 미래로"
바른정당 "유승민으로 기적의 역전율"
정의당 "심상정이 개혁 책임자"
들이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답변할 때 전북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은 행복한 전북, 부자 전북 시대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전북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도 "전북 사위 홍준표와 함께 전북발전 100년의 새아침을 맞이하자"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표를 몰아주고도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하는 슬픈 선거는 이제 그만하자"며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전북과 연고가 있는 후보는 전북의 사위 홍준표 후보뿐이다. 홍 후보가 대통령이 돼 우리 서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처갓집 동네인 전북에서 20% 이상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을 200만 기업도시로 만들고 새만금에서 포함까지 고속도로를 내겠다"며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고창의 선사문화와 익산의 백제문화를 연계해 세계적인 역사 체험 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의 탄소산업과 농생명식품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 지역별 1개 현안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안철수를 찍으면 미래

로 간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안철수 후보 지지 호소문'을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손을 잡는 대통령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이 중심이 되는 절호의 기회이자 전북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라며 "전북의 가치를 키우고 전북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후보, 전북에 대한 진정성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 안철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성공시킬 후보, 백년먹거리 첨단농식품산업, 글로벌 탄소밸리 등을 통해 전북 경제를 책임질 후보는 안철수"라고 설명했다.
또 "안철수 후보의 승리는 '전북 FIRST'의 완성"이라며 "전북도민의 선택으로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북도당도 "며칠 전부터 유승민

태풍이 불고 있다"면서 "기적의 역전 만무 홀런을 쳐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심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 사표(死票) 방지 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신투표 흐름이 아주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면서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두 자릿수 득표를 위해 '촛불 포심'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사표론'을 내세우며 진보층 결집을 강화하고 홍준표 후보 측은 보수층 결집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혁을 내세우며 촛불 민심에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로부터 시작된 만큼 개혁 열망이 큰 국민은 '개혁 책임자'로 심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심 후보 측은 전했다.
/인재용 기자

19대 대선 최종투표율, 80%대 선 넘을까?

선관위 "궤위선거로 투표 마감시간 2시간 연장
사전투표율 26.1%에 달해 이번엔 가능성 커"
80% 넘으면 1997년 15대 대선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뤄지는 제19대 대선 투표율이 20년만에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8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극투표 의향층이 많아졌고 궤위선거로 투표 마감시간이 2시간 연장된 데다, 사전투표율이 26.1%에 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의 최종투표율이 8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80.7%를 기록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대선 투표율은 15대 대선 이후 16대 70.8%, 17대 63.0%, 18대 75.8%

등 줄곧 70%대 안팎에 그쳤다.
개표 마감 시간은 과거보다 늦어져 이틀남인 10일 오전 6~7시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과거 대선의 개표 종료 시간은 17대 오전 3시 10분, 18대 오전 5시 8분이었다.
높아진 투표율과 투표 마감시간이 종래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늦춰진 점, 투표용지가 28.5cm로 길어져 투표지분류기 처리 속도가 분당 310매에서 190매로 저하된 점 등이 개표 종료 시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도입에 따른 봉투 개봉

19대 대선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